

다이쇼 방적

- 보통 에코 상품으로 감동을 주는 울트라 리얼 소프트

면방적은, 원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산업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재(商材)가 천연 산물(天然產物)로 되어 있으므로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으며, 최근에는 에코 소재(eco 素材)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물자가 넉넉한 현대(現代)에서, 그럴수록 새롭게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 등으로 환경에 유익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 다이쇼(大正) 방적은 업계를 리드하면서 “환경에 대응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디에나 있어, 흔해빠진 것으로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타월은 그와 같은 일상품의 대표적인 아이템일 것이다. 다이쇼 방적은 타월에 오가닉 수피마 면(organic supima 綿)을 원료로 한 초 약연사(超 弱撚絲)인 ‘울트라 리얼 소프트(Ultra Real Soft)’를 사용한 타월을 제안하였다. 이 실은, 만지는 순간에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촉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보통 실보다도 30~40% 정도 연계수(撚係數)가 작다는 점이며, 정방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섬유 속이 그냥 빠져버리지 않고 적절한 드래프트(draft)로 방출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정도의 약연에서도 잔털이나 낙면이 거의 없는 것도 큰 특징이다. 마지막 공정인 오존 표백(ozone 漂白) 가공으로 원료로부터 제품까지 환경에 미치는 양(量)을 억제하고 있다.

환경에 유익한 상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 追跡可能性),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 持續可能性) 등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것이 코스트 세이빙(cost saving)이다. “일부의 부유층뿐만 아니라 생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만 세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이쇼 방적은 앞으로도 “사람과 지구에게 안심(安心)·안전(安全)을”, 뿐만 아니라 “입는 사람·사용하는 사람이 감동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